

[제주잠녀]94.<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5)서귀포시 법환동

바다·마을 상생위해 시나브로 변신중

등록 : 2007년 11월 18일 (일) 14:53:49
최종수정 : 2007년 11월 18일 (일) 14:53:49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내려갈 땐 한빛,올라올 땐 천칭만칭 구만칭’.

법환동은 국내 최남단 어촌마을이다. 한때 마을 여인 전부가 잠녀였을 만큼, 바다를 조금 알만한 정도의 여자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다에 들었다는 곳이다.지금은 그보다는 영화의 배경이 됐을만큼, 아스라이 펼쳐진 포구와 바다, 그 바다위에 그림처럼 떠있는 범섬 등 누구라도 카메라를 찾고 싶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으로 더 유명해졌다.마침 그 마을을 찾아간 날은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기대감을 담뿍 담은, 마을 행사가 한창이었다.



△“그렇게 물건이 적은 바다가 아니었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을 즈음, 바다는 그렇게 속았이를 했다. 전복은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주수입원인 소라TAC물량이 5만kg 수준이니 그렇게 바다밭이 가문 편은 아닌 듯 보였다.

법환동 어촌계에서 회계일을 한다는 양현숙씨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잠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단순히 말 뿐만은 아니다. 이곳 잠녀들에게 12월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해삼'수입이 짹짹하다. 아니 했었다. 2000년만 해도 하루 500kg을 채취한 날이 있었을 만큼 잠녀들의 손이 바빴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는 총 작업량을 합해 600kg를 겨우 채웠다.

잠녀들의 수도 많이 줄었다. 어촌계원 중 여성은 112명. 이중 삼시 물질을 하는 잠녀는 67명이다. 2003년 문화관광부로 부터 '잠녀 마을'로 지정됐을 무렵만해도 74명이 활동, 당시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물질 작업을 하던 곳으로 꼽혔다.

서귀동과의 경계인 외돌개에서는 소라를, 강정동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건도에서는 한 물질에 2번 작업을 한다. 범섬에도 전복 종패 등을 뿌렸지만, 그 곳에서 작업하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한다.

범섬 작업을 하면 소라 200kg정도를 거뜬히 채취하고 올 정도인데다 전복이나 성게 해삼도 풍부한 편이지만 2개월에 한번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다. 섬 주변 물살이 워낙 세 파도가 하나도 없는 날이 아니면 당최 작업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67명 잠녀중 순수하게 바다에만 의존하는 잠녀는 1명뿐. 나머지는 반농반어로 살림을 꾸려간다. 잠녀 별로 소득도 차이가 많아 상군 수준은 한해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지만 평균 잡아 잠녀 한사람 당 한해 1000만원을 벌지 못한다고 했다.

물건 양이 줄어든 것도 이유지만 소라 가격이 예년만 못한 것도 영향이 컸다.

그래도 바다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대단했다. 바다목장 형태로 꾸준히 전복종패를 뿌리고 있는 법환 지경 일명 '일랭이' 인근은 3명이 조를 짜 지키고 있다. 금채기인데다 피서철이 겹쳐지는 여름동안은 10명에서 12명이 한 조가 돼서 바다'번'을 선다.



▲ 달라지고 있는 법환마을 현대식 탈의장

△역사문화마을, 좀더 두고 볼 일

마을은 변신중이었다.

지난 2003년 좀녀마을 지정 이후 마을에 잠녀상이 생기고, 잠녀탈의장도 현대식으로 탈바꿈했다. 체법 잘 정비된 마을길이 법환 바다의 매력을 감상하기 편하게 도와준다.



▲ 잠녀마을 지정된 후 생긴 잠녀상

법환동의 변신에는 이유가 있다.

포구에서 마주보이는 범섬은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옛날 사냥 나갔던 사냥꾼이 잘못해 옥황상제의 배를 건드리자 옥황상제가 크게 화가 나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져 범섬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무인도에는 희귀식물과 미기록 해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00년 7월 18일 범섬 전지역과 1km 이내의 해역이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됐다. 특히 육각의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온갖 해조류와 대규모 산호군락으로 꾸며진 바다 밑은 '신의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스쿠버 дай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범섬은 또 고려 공민왕 시절 원나라의 패잔병과 목자들이 제주도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자 최영 장군이 제주도에 내려와 섬멸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최영 장군이 범섬으로 도망간 원의 잔당을 뿌리뽑기 위해 막을 치고 숙영했다는 막숙, 성을 쌓았던 군성(군자왓), 활쏘기를 연마했다던 사장앞, 병기를 만들었던 병되왓, 범섬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로 배를 엮어 범섬까지 연결했다는 배엄주리, 군사를 조련 시켰던 오다리 등 지명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동서로 태평양과 직접 만나며 태풍이 불면 파도가 '서서'달려오는 이곳에는 태풍전시관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단지 구상으로 사계절 체험관광지화하는 것이다.

법환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묵혀두기 보다는 드러내 바다와 마을 모두 사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아직 '어촌관광단지'인지 '역사문화마을'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덜된 듯 보인다. 첫 술에 배부름리 없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마을은 시나브로 변하고 있다.

나중이 어찌 될 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외돌개 인근 동바르·가린여·진머홀·망다리·서홀·도리술코지·앞바르·배업주리·두머리물(강정 경계)에 양식장으로 활용하는 일랭이까지 이름만으로도 정겹던 것들이 사라지고 '잠녀체험장'같은 낯선 낱말만 남을 것 같은 아쉬움이 초겨울 바람을 타고 마음 한편에서 서걱댄다.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 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서귀포시 강정동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